

중국, 석탄 생산 14년만에 최저

2014년 36억톤으로 2.5% 줄어 ...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 20%

중국은 석탄 생산량이 14년만에 감소했다.

중국석탄공업협회에 따르면, 2014년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전년대비 2.5% 줄어든 36억톤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

인민일보는 화력발전소, 철강, 건축자재 등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수요 감소로 고전하고 2014년 초부터 석탄 가격이 폭락해 약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

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탄광을 무더기로 폐쇄하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생산량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중국은 2012년 기준 석탄 소비량이 글로벌 소비량의 50.2% 차지했으며, 에너지 소비총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70%에 달했다.

중국 정부는 스모그 발생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력, 풍력, 태양광, 원자력 등 비화석에너지 소비비중을 1자릿수에서 2030년까지 20%로 확대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5/01/27>